

콘텐츠 한류 세계화 포문 열다

방탄소년단 필두 영화·드라마 등 한류 아시아 넘어 미국으로

방시혁 박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높게 평가하는 건 대중문화의 성지로 통하는 미국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 공로로 5일 열린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DNA 공연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방 대표가 프로듀싱한 한류그룹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19일 미국 3대 시상식으로 통하는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K팝 그룹으로는 첫 단독 공연했다. 동시에 현지 3대 토크쇼에 출연하고, ABC 신년 특집방송에도 나온다. 방탄소년단을 위주로 한 K팝을 선봉장으로 해서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 위풍당당하게 행진하고 있다. 수준 높은 콘텐츠가 힘이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진출은 '한류 콘텐츠의 세계화'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K팝 아시아 넘어 미주 점령

2009년 걸그룹 '원더걸스'가 '노바디'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76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다.

하지만 미국 현지 문턱은 높았다. 원더걸스는 결국 국내로 유턴을 했다.

2012년 사이가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핫100'에서 2위를 차지하며 미국을 비롯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이번엔 가까웠다. 이후 미국 진출은 거창하게 말하면 '도전의 역사'였다.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다르다. 2013년 데뷔한 이 팀은 초창기에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발달로 해외 팬들과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콘텐츠 역시 자연스럽게 소비된 것이다.

멤버와 팀 전체의 성장 서사가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팬들과 유대감이 커졌고, 최근 들어 그 쌓였던 기운이 폭발한 것이다.

해외의 마니아들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소비되던 K팝 문화 여파가 방탄소년단을 기점으로 바뀐 것이다.

DSP미디어에 속한 혼성그룹 카드(KARD)도 비슷한 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 받은 뒤 국내에 이름을 알린 '역수입 그룹'된 팀으로 평가 받는 카드 역시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미국 등지에서 해외 부어를 들었다.

가요계 관계자는 "물론 방탄소년단이 영미권의 트렌드를 잘 쫓고 있지만 군무와 평소 모습은 해외 팬들에게 이질적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SNS 소통을 통해 이질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접근한 것이 인기를 얻는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봤다.

▷K팝 이어 영화 드라마 웹툰도 인기

방탄소년단은 해외 팬들과 소통 능력도 탁월했지만 역시 해외 음악시장에서 통할 만한 콘텐츠의 질도 갖고 있었다.

'체인스모커스', DJ 스티브 아오키 등 유명 해외 뮤지션과 협업이 가능했던 이유다.

K팝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웹툰, 그리고 게임 콘텐츠 영역도 미국에서 주목 받고 있다. 오는 20일 개봉을 앞둔 영화 '신과 함께'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에 판매됐다.

특히 '신과 함께' 감독인 김용화는 마블 히어로의 창시자 스탠 리의 제작사인 파우언터테인먼트, 루카프로덕션과 손잡고 할리우드 진출을 확정된 상태다.

KBS 2TV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팅한 미국 ABC 방송의 '더 굿 닥터(The Good Doctor)'가 현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웹툰 역시 K웹툰으로 불리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미국에서 월 이용자가 300만명을 최근 넘겼다.

게임업계도 미국 진출이 화두다. 컴투스(대표 송병준)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지난달 25일(미국 현지기준)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씨어터에서 e스포츠 축제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SWC) 월드 파이널'을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회가 열리기 정확히 일주일 전인 18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 씨어터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공연했다.

방시혁 대표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2017 엠넷 아시아 뮤직어워즈(MAMA)'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방탄소년단이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미국) 주류 문화와 공존하거나 새로운 주류문화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류의 과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가운 점은 미국 내 한류 콘텐츠가 단타가 아닌 장기적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큰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 방탄소년단의 경우에서 협업 등에 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 김용화 감독 역시 할리우드 데뷔작으로 예정된 '프로디지(Prodigy)'이 흥행과 비평 면에서 성공할 경우 명실상부 현지 톱 감독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서머너즈 워'는 미국 챔비드라마 '워킹메이스트'로 유명한 스카야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코믹스 등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방시혁 대표는 이날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상을 받은 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2, 제3의 방탄소년단이 나와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익힌 노하우를 살려 성공 모델링을 완성하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러시아 참가 불허 IOC 결정 존중”

IOC, 러시아 선수단 평창 출전 금지... 개인 출전만 허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결정한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참가 금지 조치와 관련, "IOC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평창 조직위는 6일 '러시아 선수단의 중립국 자격 출전을 허용한 IOC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IOC 그리고 모든 관련 기관, 평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입원

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OC는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뤄진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과 관련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수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지만 러시아 국가나 국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고 대회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동계종목 스타 선수들을 대거 보유한 러시아의 출전 금지로 인해 평창 대회 흥행성공에 적신호가 켜졌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선수권 31-19 중국에 완승

한국 여자핸드볼이 제23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중국을 꺾고 2승째를 신고했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5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중국과의 대회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31-19 완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에 한걸음 다가갔다.

24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네덜란드, 독일, 중국, 카메룬, 세르비아와 D조에 속했다.

2승1패를 기록 중인 한국이 다음 상대 카메룬을 제압할 경우 사실상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이날 강 감독은 한 수 아래인 중국을 상대로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다. 류은희(부산시립공단), 심혜인(부산시립공단) 등 주축 부상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다.

유소정(SK수강글라이더즈)이 8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 조하람(광주도시공사)이 6골, 김선화(SK수강글라이더즈)가 5골을 보냈다.

플레이메이커로 경기를 이끈 이미경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핸드볼 팀.

은 경기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았다. 강재원 감독은 "부상 선수가 늘어나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오늘처럼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일 카메룬과의 경기에도 최

대한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향후 남은 경기는 물론 결선 토너먼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tvN 새 예능프로그램 '강식당' 첫 회부터 6% 육박



tvN 새 예능프로그램 '신서유기 외전-강식당'

코미디언 강호정의 새 예능 '강식당'이 첫 방송에서 6%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올렸다.

6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피이에 따르면, 전날 전파를 탄 케이블 채널

tvN 새 예능프로그램 '신서유기 외전-강식당'(연출 나영석·신호정)이 전국 평균 시청률 5.9%(유료 플랫폼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5.9%)를 기록했다. 이날 시청률은 '신서유기' 모든

시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로써 '강식당'은 전작인 '신서유기 외전 꽃보다 청춘'의 부진도 말끔히 씻어냈다(1.7%). '강식당'은 강호정을 포함한 이수근·은지원 등 '신서유기' 멤버들이 제주도에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이다.

이번 작품은 지난 3월 방송된 '윤식당'과 같은 형식이다.

첫 회에서는 강호정과 멤버들이 식당 메뉴를 정하는 모습, 돈까스와 오므라이스를 메뉴로 정하고 백종원에게 레시피를 전수받는 모습이 담겼다. 또 첫 영업일의 긴장감도 함께 그려졌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